



7월 국내 · 외 리콜현황 및 정책동향

국내 · 외 리콜현황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11건 - 공산품 11건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111건(강제 72건, 자발 39건) - 공산품 84건, 전기용품 27건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20건(자발 20건) - 공산품 12건, 전기용품 8건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10건 - 공산품 10건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18건(자발 18건) - 공산품 13건, 전기용품 5건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5건(자발 5건) - 공산품 5건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23건(자발 23건) - 공산품 16건, 전기용품 7건 			

주요 사례

국가	제품명	제조사	리콜방법	리콜구분	리콜 주요원인
한국	유아용의류 (바지)	H&M 헤네스앤모리츠	전액 환불	자발적 리콜	- 벨트를 고정하기 위해 부착되어 있는 금속 장식이 떨어져 3세 이하 아동 질식 위험
미국	히터	Sunbeam	환불	자발적 리콜	- 과열로 인한 화재나 화상 위험
일본	의류 건조기	산요전기 주식회사	점검 · 수리	자발적 리콜	- 기기 내부 부품에 수분이 가해졌을 경우 드물게 발연 · 발화 위험
캐나다	사다리	Federated Cooperatives Ltds	환불	자발적 리콜	- 발판을 접을 경우 붕괴되어 소비자 낙상 우려
EU (헝가리)	레이저 포인터	미상	시장 제품 회수 및 소비자 리콜	강제적 리콜	- 레이저 제품으로 시력 손상 위험
호주	배터리팩	Panasonic Australia Pty Ltd	무상 교체	-	- 제조 결함으로 과열, 연기 발생, 화재, 화상 위험
뉴질랜드	스케이트 헬멧	Kmart Australia Ltd	환불	자발적 리콜	- 강제안전기준 규정 불이행 - 넘어지거나 사고 발생 시 헬멧끈이 헬멧을 지탱하지 못함



제품안전 정책동향

日 NITE, 사고 정보 조사 결과 발표

▣ 독립행정법인 제품평가기술기구(NITE)는 5월 15일, 사고정보수집제도에 따른 사고 정보의 조사 결과에 대하여 발표했다. 이 기관에서는 소비생활용 제품 등에 관한 사고 정보를 수집하여, 그 사고 원인을 조사 및 규명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사고의 미연·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조사 결과는 2013년도 제 4/4분기 조사 분량의 2/2로서, 사고 정보 수집 제도를 바탕으로 NITE에서 지금까지 수집한 사고 정보에 관하여 조사, 확인, 평가한 후 2013년 제 4/4분기 중에 사고원인에 대한 분석이 완료된 사례를 품목별로 정리한 것이다.

▶ 사고정보 조사 결과 (2013년 제 4/4분기)

- | | | |
|-----------------------|-------------------|-----------------------|
| - 가정용 전기제품의 사고 : 146건 | - 연소기구의 사고 : 144건 | - 가구 및 주택용품의 사고 : 73건 |
| - 승용용품의 사고 : 32건 | - 신변용품의 사고 : 10건 | - 주방용품의 사고 : 6건 |
| - 레저용품의 사고 : 5건 | - 보건위생용품의 사고 : 2건 | - 섬유제품의 사고 : 1건 |

日 NITE, 아웃도어 제품 사고 관련 보도자료 발표

▣ 독립행정법인 제품평가기술기구(NITE)는 5월 29일, 아웃도어 관련 제품 사고의 현황 및 사례 등에 대한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캠핑과 바비큐에 관련되어 발생한 제품 사고 건수는 총 40건(사망 1건, 중상 1건, 경상 14건, 확대피해 3건, 파손 10건 등)으로, 특히 가열기구의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 화상 등 중대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아웃도어 제품의 사고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이동식 가스레인지 두 대 나란히 연결하여 사용하여 폭발, 15명이 화상
- 밀폐된 방갈로 안에서 화로를 사용하여 2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 사망
- 아웃도어용 접이식 의자를 장기간 직사광선 하에 방치하여 강도가 약해지는 바람에 사용자가 앉았을 때 파손, 사용자 중상
- 스프레이 냉각제(적정 사용시간 : 1~2초)를 5초 동안 반대나에 뿌린 후 신체에 감아둔 사용자가 과도한 냉각으로 인하여 동상

아웃도어 제품의 경우 제품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보다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므로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캐나다 보건부, 세이프티 코드 6 공개 협의 발표

▣ 캐나다 보건부는 5월 16일, 세이프티 코드 6의 개정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개 협의 프로세스를 개시했다. 세이프티 코드란, 캐나다 보건부가 전자기기(휴대전화, Wi-Fi, 방송, 휴대전화 기지국 등)에서 방출되는 고주파 전자 에너지의 피로 한도에 대해 지정한 가이드라인이다. 세이프티 코드에 대한 공개 프로세스가 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이프티 코드 6의 개정판은 7월 15일까지 캐나다 보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캐나다 보건부는 과학적, 기술적 자문을 수집하여 세이프티 코드 6의 최종 개정 가이드라인을 2014년 가을 즈음 발표할 예정이다. 캐나다인들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세이프티 코드 6에 대한 의견을 남길 수 있다.

현재 캐나다에서의 고주파 전자 에너지 피로 한도는 타 국가(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사용되는 과학적 기준과 같다. 캐나다 보건부의 개정안이 채용되면,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고주파 전자 에너지 피로 한도를 단속하는 국가가 된다.



제품 위해 뉴스



제품 위해 뉴스 - 국내자료

☞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	동아일보 등	'14.5.12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옷가게 내부에서 에어컨이 발화원으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 ·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범일역에서 열차 첫 번째 객실에서 에어컨 과열로 연기 발생(인명 피해 없음) · 충북 청주시 소재의 한 낫시마트의 에어컨 실외기가 발화원으로 일어난 불이 주차된 버스에 옮겨 붙어 화재 발생 · 대전 유성구 소재의 한 고등학교의 빈 교실에서 선풍기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 		
☞ H&M, 유아용 바지 10종 리콜	연합뉴스 등	'14.5.19
<p>한국 소비자원, 스웨덴 의류 브랜드 H&M의 유아용 바지 중 일부에 대해 안전상의 문제로 리콜 조치 권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지 벨트를 고정하기 위해 부착한 금속 장식이 떨어질 경우 3세 이하의 아동이 섭취, 흡입할 우려가 발견됨(품공법상 '작은 부품 탈락여부 안전기준' 위반) - 리콜 대상은 바지 내 검은색 라벨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액 환불 조치 계획 		
☞ 김치냉장고로 인한 화재	연합뉴스	'14.6.3
<p>부산시 사상구 소재의 한 2층 주택에서 김치냉장고가 발화원으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200만원의 재산 피해)</p>		
☞ 진공 청소기로 인한 화재	기호일보	'14.6.9
<p>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진공청소기 모터 과열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600만원의 재산 피해)</p>		
☞ 진공청소기로 인한 폭발	YTN 등	'14.5.11
<p>-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PC내부를 분사식 먼지 제거제로 청소한 후 진공 청소기를 가동하다 폭발 발생 (1명 화상/주차 차량 3대 파손)</p>		
☞ 소형 장난감, 유모차 범퍼 삼킴 사고 주의 필요	머니위크 등	'14.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소비자테스트기구(ICRT), 지난 해 유모차 품질 테스트 실시결과 국내 시판 중인 15개 제품 중 2개 제품이 범퍼바 뜯김 테스트 기준 미달 - 해당 제품은 범퍼바 커버 제거 시 섬유 조각이 떨어져 흡입, 질식 위험성 시험 불합격 · 소비자원, 지난해 동물모형 완구 10종을 대상으로 삼킴 위험 우려, 경고 표시, 유해물질 함유 실태 등 분석 결과 일부 제품은 영유아가 삼키거나 흡입할 우려 있음 		



☞ 화장지 형광물질 표시 '과잉규제' 논란

파이낸셜뉴스

'14.6.11

국표원, 화장지 안전품질기준 개정을 통해 형광증백제 표기 의무화 추진(현행 : '자원재활용 원료를 사용한 제품' 표기 규정)
 - 화장지 업계, 형광증백제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개정안이 마련될 경우 소비자 혼란 기증 우려가 있다고 반발
 - 제지 업계 관계자, 일부 화장실용 화장지의 경우 '자원재활용촉진법'에 따라 복사용지를 원료로 제조되며, 이 때 재생 원료 자체에 존재하는 형광물질이 일부 나타나는 것이라 주장

제품 위해 뉴스 - 국외자료

☞ 산요, 의류건조기 48만대 수리 조치

공동통신

'14.5.19

파나소닉 그룹의 산요전기는 5월 19일, 약 48만대의 전기 의류건조기를 무료로 점검·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류 투입구 부근의 패널 틈새에 물이 스며들어, 내부의 부품이 발화할 위험이 확인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지금까지 토치기현과 치바현, 오사카부에서 총 3건의 관련 발화 사고가 일어났다. (인명피해 없음).

☐ 수리 대상 (총 14기종)

(1) 1994년 5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제조된 (SANYO) 브랜드 건조기 11기종

(2) 1994년 9월~1997년 6월까지 제조된 (NEC) 브랜드 2기종 등

☞ 스마트폰의 발열 매커니즘

마이ナビ뉴스

'14.5.25

일본 언론이 스마트폰의 발열 매커니즘에 대해 설명했다. 2차전지가 내장된 소형 디바이스를 충전할 때에는 배터리의 충전을 제어하는 부분이 활성화되어 평소보다 더 많이 발열하게 된다. 이 때 배터리의 전압도 올라가기 때문에 충전 중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할 경우 내장 부품에 부하가 걸려 발열량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케이스를 장착할 경우 열의 방출이 원활하지 않아 내부에 열이 고이기 쉬운 상태가 되므로 발열이 신경쓰일 때에는 케이스를 벗기고 충전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내부 온도가 적정 수준을 초과하여 스마트폰에서 경고가 발생할 경우 USB 케이블을 뽑고 바로 시원한 장소에 놓아두면 된다.

참고로 iPhone 사용 중 적정 환경 온도 범위는 0℃ ~35℃이다. iPhone의 보관법에 따라 단자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발열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단자 내부에 먼지가 쌓여 있을 경우 접속부에서 쇼트를 일으켜 최악의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단자 부분이 평탄한 Lightning 케이블로 변경된 후에는 사고가 많이 줄었으나, Dock 커넥터를 사용할 경우 수분과 먼지 때문에 쇼트를 일으키는 사고가 때때로 발생하고 있다.

☞ 리콜되었던 유아용 안락의자로 사망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14.6.2

미국 뉴저지에서 유아용 안락의자(Nap Nanny Infant Recliner)를 사용하던 8개월 여아가 의자에 몸이 끼어 사망하였다. 이 유아용 의자는 2010년 초 미국에서 4세 유아의 사망으로 리콜되었던 제품이었다. CPSC에 따르면 2009년~2013년 6월까지 해당 제품 관련사고가 92건 발생했으며, 이 중 5명이 사망함. 이 사고 직후 제품의 사용 중단을 촉구했으며, 제조사는 리콜 조치를 취했다. 따라서 더 이상 이 위해제품이 상점에서 판매되지 않아야 하지만 중고품 판매처 또는 경매 사이트에서 버젓이 판매되었다. CPSC는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이 위해제품의 판매는 불법이라고 강조하였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주간 제품안전 동향